

청계천 이렇게 되살린다.

도심속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



7월 1일부터 청계천고가 철거를 시발로 막이 오른 청계천 복원공사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의 3개 공구별 기본설계안을 공개하고 7월 중순경 실시설계를 거쳐 청계고가 철거가 끝나는 대로 복개구조물 철거와 동시에 복원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설계안에는 청계천을 도심속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용수의 유지와 경관 및 조경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시는 이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실시설계기간 동안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공구 : 8개 교량 중심 특색있는 공간 조성

태평로 입구~광장시장간 2km 구간으로 대림사업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공사를 추진한다.

하천 및 유지용수와 관련, 좌·우안의 연도변에 사면옹벽 구조물을 세우고 유지용수는 자양취수장에서 한강원수와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와 지하철 지하수로 충당된다.

특히 유지용수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의 강도와 내구성이 좋고 식물 생육에 유리한 연직차수공법이 채택됐다.

시점부의 오수 및 우수의 분리를 위해 백운동천 중학천 등 상류에서 유하하는 하수를 시점부 차집관거 및 초과월유수 관거로 분리 배치한다.

초기 초과월유수는 사면 벽체공간 구조물과 고

수부지에 관거를 신설해 처리한다.

도로의 포장은 차도부(복개 및 교량구간)의 경우 배수성 아스팔트, 보도부는 업무지역의 경우 화강석판석, 상업지역은 소형고압블록, 하천변 보도는 점토블록으로 한다.

구간 내에는 모전교 광고 관철교 삼일교 수표교 관수교 세운교 배오개교 등 8개 교량이 건설될 예정인데 광고 등은 석재로 마감, 전통미를 재현하도록 계획돼 있다.

또 수표교 하류에는 옛 빨래터를 재연하는 등 8개 교량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하도는 다공질 호안을 설치,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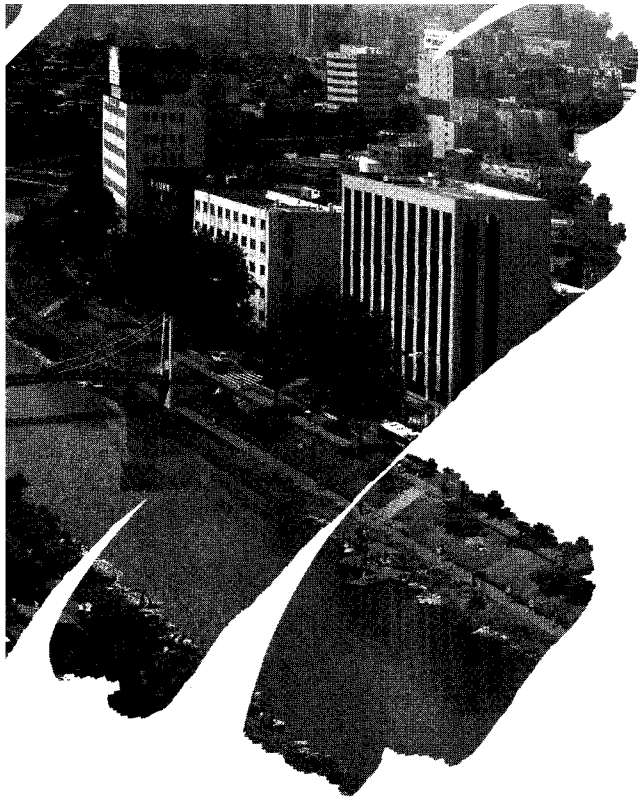
△ 2공구 : 기포부상식 UV소독설비로 수질 확보

광장시장~난계로간 2.1km 구간으로 LG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이 구간 내에는 새벽다리, 나래1교, 나래2교, 버들다리, 프른내다리, 오수간교, 창선방교, 영도교 등 6개 교량별로 위치에 따른 테마를 담아 낸다.

한천 및 유지용수분야의 경우 개구블록 분산 배치해 전구간에 안정적인수위형성을 유도하고 유지용수의 수질확보를 위해 기포부상식 UV소독설비를 도입한다.

유지용수의 손실방지를 위해 차수벽과 라이너를 동시에 설치하고 초기 초과 월유수는 CDS월류수처리장치로 정화 후 유지용수로 활용한다.



[청계천 이렇게 되실린다.]

△ 3공구 : 6곳에 여울식낙차공 설치

청계8가 난계로~신답철교간 1.7km 구간으로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천 및 유지용수와 관련, 벽체 개구부는 원활한 유량 소통을 위해 좌안과 우안 18개 교량의 교대부에 설치하고 자동화개폐시설을 도입. 악취와 우범화를 방지한다.

유지용수의 손실방지를 위해 3개 구간 가운데 2개 구간은 시트파일 치수공법을 도입한다.

초구우수관로는 단면계획에 따른 사면벽체 구조물 배후공간을 활용하고 자연제방구간에는 초과월류수 암거를 신설한다.

교량은 황학교, 비유교, 무학교, 두들다리, 고산자교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역사의 흔적과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담아 내도록 계획돼 있다.

경관 및 조경은 호안벽면의 경우 용벽모돌지주로 고풍스런 맛이 풍기도록 하고 용벽정상부는 고건축 처마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하천호안은 홍수시 유속, 속류력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낙차공 기능과 빠른 여울구조를 조합한 여울식 낙차공 6개소를 설치, 다양한 물흐름과 어류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경관의 확보를 위해 저수호 안의 경우 자연성이 풍부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수호 안은 높이의 위압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고수부지는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 천변 쉼터로 조성하고 천변가로는 계절감을 주는 가로수를 심는다.

생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우안고수부지를 생태통로로 만들고 하류부에는 생태습지를 조성한다.

특히 홍인물로 교량과 상류측 교량 사이에는 패션광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25m의 전망대도 설치한다.

